



国内消息

原子力 安全센터 發足

原子力發電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종합적으로 전담하고 정부
의 原子力發電所 안전규제 및 認
許可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
된 原子力安全센터(센터장 車宗
熙)에너지연구소장 겸직)가 2월
10일 韓國에너지연구소에서
현판
식을 가졌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규제기준
개발과 안전검사, 機資材 품질보
증업무를 통해 原電의 가동율향
상 및 방사능에 대한 환경보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同센터는 특히
국제협력력을 통해 최신 원자력
안전기술 정보습득과 要員의 능력
향상을 적극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美國원자력규제위원
회(NRC), 프랑스원자력안전방
호연구소(IPSN), 西獨원자로안
전공사(GRS)등과의 기술협력및
기술요원파견훈련, 비상시 지원
체제마련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國策研究課題 11個確定

科技處, 올해 事業費

140억원 支援

정부는 11個 課題를 國策연구
과제로 최종확정하여 82년도에 1
백4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과기처가 마련한 특정연구(국

책연구)개발사업계획에 따르면 이
계획은 國策연구개발사업과 산업
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 나누어 수
행하며 5차5개년계획기간에 총
1천4백억~1천5백억원이 투
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國策연구개발사업은 공익성이
높고 중장기대형연구 또는 공통
핵심기술로써 정부가 주도해야할
과제로는 원자력안전성, 유전공학,
민간소형비행기연구, 화학물질안
전성연구, 컴퓨터에의한 설계및
제조등 5개과제이다.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은 기업
이 당면한 주요기술로 컴퓨터 및
반도체 기계기술, 정밀화학, 금속
재료, 고분자화학공업, 시스템산
업기술등 6개과제를 선정했다.

과기처는 산업기술개발에 중점
을 두어 7대3의 비율로 투자한
다. 따라서 금년에 산업기술에 1
백억원, 國策연구에 40억원을 배
분키로 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산업기술연
구개발사업은 기업에서 정부와 연
구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기업
주도로 연구개발을 주관하되 기
술적 파급효과가 높고 기술수요
가 큰 분야, 수출증대및 수입대
체효과가 높고 기업화가 용이한
분야를 國策연구과제로 선정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사업은 기업
의 당면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산업계와 협의, 구체
적인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기업
이 과제신청과 함께 연구책임자
도 추천하는 연구개발시스템을 채

택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의한 工業所有權은
정부와 기업의 부담비율에따라 공
동소유하되 정부소유분은 연구수
행자나 참여 민간기업체에 양여
한다.

연구결과를 기업화하여 성공한
경우는 정부出捐상당액을 技術料
로 받아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
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의
복지기금으로, 또는 참여 연구원
에 대한 能率提高수당으로 지급
된다.

우라늄精鍊技術 獨自開發, 探索 技術 도 함께 高度化

韓國動力資源研究所는 우라늄
정밀탐사및 우라늄精鍊 공정
의 독자기술확립을 비롯한 核燃料
자원개발과 大陸棚석유탐사등 해저
자원탐사기술을 본격적으로 개발
하기로 했다.

同연구소는 이를 위해 고도기
술을 도입한 광물탐사와 광물이
용기술의 확립연구등에 박차를 가
하기로하고 금년중에 약30억원에
달하는 연구사업비를 투입키로
했다.

動資研은 81년도에 기초실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항공방사능및
磁力탐사성과를 바탕으로 우선 沃
川系지층 동부지역 우라늄精鍊의 物
理탐사·檢層·試錐에의한 정밀
조사를하기로 했다.

또한 槐山지역 우라늄精鍊

原子力産業①②

공정의 파일럿플랜트시험, 기초설계에 의한 開發性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南海대륙봉 試錐지점신청을 위해서는 5·6·7鑛區일부의 탐사자료정밀해석, 시추평가, 檢層과 석유지질연구를 강화함으로써 대륙봉의 석유개발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同연구소는 이밖에 石炭및 전략광물자원의 안정확보연구및 국토기초지질조사, 自然動向연구를 더욱 활성화한다.

聞慶·湖南炭田의 개발합리화 및 低質炭활용방안 연구, 기계화채탄, 탄광갱내 通氣개선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太白山및 慶南鑛化帶의 전략광물탐사와 그 개발성 연구, 未利用 국내 대량부존자원인 金·銀·티타늄·알루미늄鑛 등의 처리기술을 연구, 국내에 분포된 주요 지하자원의 확보와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로 했다.

「韓國電力公社」 發足

韓國電力會社 발족식이 1월 4일 李宜基 동력자원부장관, 李台燮 국회상공위원장등 정부관계인사와 成樂正 사장직무대리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이로서 20년 6개월 동안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온 韓國電力(株)은 韓國電力公社로 전환, 새 출발하게 되었다.

「韓國核燃料주식회사」 설립 추진반 설치

韓電은 경수로 원자력발전용 核燃料의 성형가공 국산화 추진을 위한 한국핵연료주식회사의 설립 방침에 따라 同會社의 원활한 발족을 위해 발족준비업무 및 설립기간중의 사업지원을 전담케 될 한국핵연료주식회사 설립 추진반

을 구성, 작년 11월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반장 1명(핵연료실장 겸무), 간사 1명(법규과장 겸무), 과장 대리 2명, 직원 1명(이상 韓電 직원)과 에너지연구소에서 파견된 2명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설립추진반은 이 회사가 설립될 때까지 관련 대외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조정, 대내 관계부처와의 업무 종합 조정 및 결정, 사업정관작성, 투자관리 및 정산, 기타 부대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原子力 9·10호기 事業管理 자문 운영계약체결

原子力 9·10호기 事業管理 諮問用役계약이 작년 12월30일 韓電과 미국 「에바스코·오버시즈」社 사이에 체결되었다.

이 계약은 금년 3월부터 89년 3월까지 7년동안 원자력 9·10호기 건설에 필요한 土木·기계·전기·기기조작등 약 1,200 만불에 달하는 자문용역으로서, 9·10호기의 1차계통인 原子炉계통과 2차계통인 터빈발전기 및 보조기기 설비가 종전과 달리 프랑스의 「프라마툼」社 및 「코제마」社와 역시 프랑스의 「알스름·아트란틱」社로부터 공급되게 되어있어 전문용역회사의 자문이 필요하게됨에 따라 체결된 것이다.

國內 첫 核物質分析法 確立 標準 信賴度 99%立證

韓國에너지연구소 화학분석실 연구진은 국내 최초로 核物質의 습식분석법기술확립에 성공, 核燃料國產化를 위해 忠南大德에 설립중인 核週期시설에대한 기술의 본격이용체제를 완비했다.

이 연구진은 그동안 구성성분

및 화학적성질이 다양한 核原料 물질(1차분리된 鈾농화합물) 중의 鈾농 분석시 各物質의 종류및 형태가 다양해 신속정확성이 결여되고 방법의 표준화가 어려웠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濕式처리에 의한 比色분석법을 확립한 것이다.

1차적으로 鈾농의 核의특성을 利用하는 原子力發電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鈾농을 분리회수, 發電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核에너지의 원활한 이용에는 精鍊·轉換및 成型가공등의 核주기 기술의 확립이 필수적이며 이에 수반되는 화학분석기술이 적합해야 한다.

중대 鈾농분석에는 放射化分析 또는 X線형광분석등의 특수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채택되어 왔으나 보편성이 부족했다.

그래서 연구진은 불순물이 많은 鈾농화합물중의 鈾농분석과 광석중의 微量鈾농분석을 위해 여러종류의 광석을 질산(HNO₃), 질산과 4酸化염산(HClO₄), 질산과 4酸化염산 및 黃酸(H₂SO₄)의 混酸으로 처리, 溶出하는 鈾농과 20여종의 기타 元素를 조사했다.

그 결과 질산과 4산화염산의 混酸사용방법이 IAEA의 표준우라늄시료와 비교, 99%의 신뢰도를 보여 우수한 분석방법으로 입증된 것이다.

따라서 KAERI연구진은 濕式法에 의한 새로운 核物質分析法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低品位우라늄광석의 분석및 화학적 성분조사의 표준방법으로 적용가능한 것으로 평가, 전체 核주기에 관련된 화학분석의 표준방법을 확립할 계획으로 있다.